

온 가족 함께하는 환경 체험의 장 통합마케팅 조직 평가 'S등급'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서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 진행

무주군이 가족과 함께하는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진행,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신비탐사는 2022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의 홍보와 자연과 동화되고 옛 향수를 자아내는 정서 곤충인 반딧불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체험의 장이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모습

무주군과 (사)무주반딧불축제제작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 개최될 반딧불 축제를 앞둔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마련하며,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3일 동안 반딧불이 서식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신비탐사에는 1,200여명이 참여하며, 3일 오후 8시 30분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버스주차장을 출발해 오후 10시까지 반딧불이 탐사에서 반딧불이의 출현과 신비한 활동 모습을 살펴보는 체험과 흥미로운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도 이번 신비탐사 기간중에 유튜브 일반영상과 쇼츠영상 함께 담아 신비탐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한다. 탐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군의 관광해설사로부터 반딧불이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유성현 팀장은 "이번 신비탐사는 3일 동안 태권도원을 비롯해 관내 반딧불이

서식지 등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도 함께 진행된다"며 "코로나19로 외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의미 있고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무주산골영화제와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신비탐사와 함께 청정 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에 대한 보호육성과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반딧불이 생태조사를 벌이

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술연구과 전 직원들이 출장해 출현 시간대(오후 8시 30분~오후 11시)에 맞춰 주변 환경과 출현 개체수의 육안조사를 벌인다. 한편, 군은 관내 반딧불이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다량 서식지를 발굴해 서식지를 보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 실시

장수군 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2일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부 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정호 전북대학교 의한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장수군민에게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하고 암 예방 및 국가암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워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을 독려하

고자 이뤄졌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암 예방 10대 수칙으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



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이다. 또한 암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매년 개별통보 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든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암 검진을 미리 받을 것을 강조했다. 올해 무료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다. 박예순 의료지원과장은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기간 내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지난해 건강(암)검진 미수검자 역시 국가건강검진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됐으니, 대상자 들께서는 반드시 국가암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국가암검진에 대한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ARS(1577-1000)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농가소득 증대·지역경제발전 기여 공로

무주군이 전북도내 13개 농산물 출하창구인 통합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가 주관한 이번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성과평가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 농가의 참여도, 통합마케팅 매출실적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 S등급을 결정했다.

무주군은 전년도 B등급에 머물렀으나, 통합마케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올해 두 등급 상승된 S등급을 차지해 1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인센티브는 계통출하 상품화, 물류비 및 농가교육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반딧불조합공동법인은 지난 2013년 설립돼 농가 생산자 조직을 규모화 하고, 농산물 유통 판매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원예산업발전계획 이행실적 우수기관(A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무이자 30억 원을 배정받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은 "군과 농업 및 생산자 조직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판매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통합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화 물류마케팅 지원을 통해 무주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 조직화에 더욱 힘써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진안군은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실외(마당)에서 기르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올해 첫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려견을 중성화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유실·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실외 사육견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중성화 사업 진행 시 미등록 개체는 동물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20마리며 1가구 당 최대 3마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마리당 최대 4만원(암컷 4만원, 수컷 2만원)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동물병원과 일정 협의 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유기견 발생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주천면, 여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료

진안군 주천면은 '상반기 여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여성 일자리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여성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천면은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여성 주민 5명을 고용해 추진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주천면에서 나온 사용하지 않는 용품을 재활용해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근로자들은 버려질 수 있는 제품

을 기술에 부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산하며 숨을 불어넣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로써 친환경적인 생산활동이 장려됨으로써 근로자들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제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치아사랑 구강검진 진행

무주군보건의료원이 관내 아동들의 튼튼한 치아건강을 위한 '2022 찾아가는 치아사랑 구강교육과 검진'을 진행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관내 무주어린이집을 비롯해 원광어린이집, 구천동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각 어린이집 교육실에서 진행하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외한다. 구강검진은 구강보건사업팀이 투입돼 치아우식, 치은염, 부정교합 등 아동기에 발견하면 조치요소가 수월한 항목들을 검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소도포 및 치아관리법에 관련된 주의사항과 구강질환 예방 및 인지도교육을 하며, 구강위생용품도 배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530 비대면 임부 건강검진 시작

진안군은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를 대상으로 비대면 모바일 검진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1530 건강검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30 건강검진 프로젝트'는 일주일에 다섯 번, 30분씩 검기를 통해 건강한 태아와 산모의 원활한 출산을 위한 몸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며 오는 7월 2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라면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참가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30명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도 한다. 검기는 산모들이 충분히 무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개인 체력에 맞춰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 안전한 운동이다. 또한, 임신 중 걷기운동은 임부의 체중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 축하합니다

- 일로회 회원 일동 -